

종합·해설

# 친박계 “홍준표가 다 망친다”

## 유승민 “박근혜 호남에정 한방에 날리는 것”

### 지명직 최고 호남안배 묵살 당내 반발 확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을 제외하고 충청 인사 두 명만을 천거한 데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의 비판이 거세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28일 “홍 대표의 지명직 최고 인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전부 다 호남을 버리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며 “알파벳 표 때문에 호남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그동안 호남 지역에 공을 들여왔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004년 박근혜 대표

당시부터 당이 호남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보여왔는지. 그런데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리면 어떡하느냐”며 “홍 대표는 호남을 무시하는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합리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관례대로 충청과 호남에 각각 한 명씩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려해야 한다”며 “지금 이 관례를 깨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도 “홍 대표 주장은 국민에게 한나라당이 호남을 버린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서 “호남 출신 유권자가 수도권 전체 유

권자의 30~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번 인선으로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면 113개 수도권이 전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일 것이라는 게 대부분 친박 인사들의 견해다.

유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 반응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박 전 대표가 역대 당 대표 중 호남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느냐. 보나마나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지도부가 표를 계산해 박 전

대표 시절부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일관되게 배려해 왔던 호남 몫 최고위원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패착이자 인식의 큰 문제”라고 말했다.

중립 성향 권영세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호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취해야 소용없다”는 논리라면 호남발 전 위원회는 소용이 있을까요”라며 “실사 전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호남 지역만 볼 게 아니라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호남 분들도 생각해야지요. 이분들 모두 밀쳐내고 어떻게 선거를 하잔건지...”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수해대책 골몰 정치권은 중부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28일 예정된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피해 현황을 찾아 추가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위) 공직자 안전법 제정, (아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 꼬여가는 통합방정식

### 민노 이정희 “민주당은 통합대상 아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대통합’의 과제가 각 정당 간의 ‘동상이몽’으로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노선 차이는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통합 방정식’을 풀지 못하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연대’의 수준에 그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28일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는 오는 9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당 간의 통합 논의와 관련, 국민참여당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수임기관 삼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참여당 문제로 새 통합진보정당의 이정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진보신당은 ‘국민참여당’을 새 진보정당의 참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진보대통합 자체를 좌초시키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을 모를 리 없는 이 대표가 진보신당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진보대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7일 “민주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는 구조가 다르다”며 “계파정치에 머물러 있는 정당과 달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끄는 정당이 합당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어 “4·27 재보선 이후 정책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와 정책연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대통합보다는 ‘연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참여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참여당이 합류 의사를 밝히며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에 대해 성찰한다고 한 만큼, 더 단단하고 폭넓게 진보의 힘을 키워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만 부부 나와라” “안된다”

### 여야, 저축은행 국조 증권채택 싸고 감정싸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바탕 감정싸움을 벌였다.

28일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우재창 의원은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한나라당이 거듭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이) 박지만씨 부부를 증인으로 내보내면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고 한다”고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우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겠느냐”며 이같이 말한 뒤 “이렇게 해서야 국조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친박계인 이진복 의원은 이날 감사원 국정조사장에서 진행된 문서관리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요청, “오늘 충격적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나”고 따져물었다. 그는 “사실이다”라는 우 의원의 답변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냐”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우 의원이 “이런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역시 친박계인 이종혁 의원은 “정치적 금도와 상계를 벗어난 막가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인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화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조영택 의원 “은진수, 감사위 회의서 부산저축은행 비호”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르비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시정조치와 금감원 직원 문책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따르면,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 문서를 검증한 결과, 은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한 적기 시정조치

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를 관철시켰다.

감사위원회 회의 문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은 전 의원은 “특정은행만 한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금융위원회 차후에 104개 저축은행 모두에 적절할 조처를 취하도록 일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통보문안이 수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주호영 “내년 총선공천 40% 교체 예상”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28일 “내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대략 40% 중반대의 공천 교체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내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17·18대 국회를 통틀어 공천 교체율이 대략 40% 중반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의 돌파구로 지난 15대 총선 당시 진행된 ‘개혁과 새 인물 영입’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이나 도덕성 또는 헌신성 등이 증명된 사람이나를 주의 깊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의원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어느 정도 다

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진보적인 게 시간이 지나면 보수 가치로 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인재영입 대상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그렇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회 특성상 외부 인사로 꾸려질 게 분명하다. 많은 인재를 파악하고 있는 헤드헌터사 대표 등도 모실 생각”이라며 “25명 이내로 다음 주 내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박근혜 전대표 비례대표·수도권 출마를”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당선된 이종구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표의 대구 출마 기류와 관련, “비례대표로 나서거나 아니면 어려운 수도권 선거구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지향하고 있으니 대통령 후보의 위상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당투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15번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친박(친박근혜)계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친박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중앙 신보점, 대인동 소방서거리)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오양원,기동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250평(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8.9, 10.9m
- ▶ 호이스트: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제,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b>수기동 (12층관공호)</b> 대1846m2, 전764m2 감평가 90억 최저가 50억	<b>신안동(4층근린시설)</b> 대385m2, 전1191m2 감평가 8억48천 최저가 3억9천	<b>용양동 (원룸)</b> 대201m2, 전465m2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2억6천	<b>일곡동(원룸)</b> 대199m2, 전345m2 감평가 3억1천 최저가 2억2천	<b>목포해안동 (모텔)</b> 대830m2, 전2767m2 감평가 25억2천 최저가 11억3천	<b>담양금성(원천)</b> 대893527m2, 전10821m2 감평가 156억8천 최저가 109억7천	<b>계림동(의료시설)</b> 대837m2, 전4084m2 감평가 32억1천 최저가 14억4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b>광주옥동 공장</b> ▶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 건물879평 ▶ 감평가 15억7천 ▶ 매매가 9억 (협의후결정)	<b>해남 땅골콘도</b> ▶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 ▶ 감평가 83억 ▶ 매매가 35억 (협의후결정)	<b>전주 의림리유엔</b> ▶ 대지 4112평 ▶ 건물 1749평 ▶ 감평가 85억5천 ▶ 매매가 65억(협의후결정)	<b>청주 서우나 주차빌딩</b> ▶ 대지 402평 ▶ 건물 3727평 ▶ 감평가 92억6천 ▶ 매매가 33억(협의후결정)
<b>곡성석곡 공장</b>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감평가 44억3천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b>전북완주 봉동 공장</b>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평가 135억 ▶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b>웅인 골짜기타운</b> ▶ 대지 29917평 ▶ 건물 4575평 ▶ 감평가 713억4천 ▶ 매매가 250억 (협의후결정)	<b>남원 공장부지</b> ▶ 대지 2460평 ▶ 건물 1013평 ▶ 감평가 21억3천 ▶ 매매가 10억 (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김구석이사 010-6654-6888    숙박시설/상가    정이사 010-5879-0005    공장/토지    김태호전문이사 011-684-8886

<b>소매</b> 대261,2359    3억7천    2억6천    주력및2층건물	<b>소매</b> 대221,2132    5억9천    4억1천    5층모텔	<b>소매</b> 대476,21655    7억1천    3억9천    투룸11세대	<b>소매</b> 대222,21334    5억6천    2억5천    5층모텔
<b>양동</b> 대409,21475    11억5천    6억5천    원룸24실	<b>양동</b> 대233,21772    6억    2억6천    5층모텔	<b>양동</b> 대264,21992    7억1천    4억    원룸17실	<b>양동</b> 대277,21673    3억7천    2억1천    5층모텔
<b>양동</b> 대219,21492    4억8천    3억3천    4층고시원	<b>양동</b> 대272,21030    7억95천    4억2천    5층모텔	<b>양동</b> 대254,21787    5억1천    3억6천    편의점4층건물	<b>양동</b> 대81,25327    5억    1억7천    2층일부
<b>양동</b> 대201,21140    3억7천    2억6천    3층원룸16실	<b>양동</b> 대171,21963    20억    9억9천    6층일부	<b>양동</b> 대203,21647    3억6천    2억2천    4층근린건물	<b>양동</b> 대126,21206    5억    1억7천    1층일부
<b>양동</b> 대1126,21342    2억1천    1억4천    3층근린건물	<b>양동</b> 대156,21313    2억5천    1억1천    지하1층	<b>양동</b> 대622,21991    6억2천    2억8천    4층근린시설	<b>양동</b> 대241,21690    9억    4억    3층일부

아파트/빌라    맹태진팀장 010-2634-3752    주택/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정이사 010-5879-0005

병원,교회,사옥,모텔,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전문가(실천)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